

한마음한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1988년故김수환 추기경님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 운동과 생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재단입니다.

7



vol. 278 | 2026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



©Caritas Venezuela

베네수엘라 강진, 지금 우리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24일,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베네수엘라 중북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최근 100여 년 사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구조팀들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교황청 애덕봉사부를 통해 긴급구호 자금 10만 유로를 지원하며 현지의 아픔에 함께하셨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도 애도 메시지를 통해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서울대교구 신자들과 함께 기도와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7월 31일까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총 1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카리타스를 포함한 국제 카리타스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베네수엘라 내 이재민을 위한 긴급 대피소 운영, 식수 및 위생용품 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모아주세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긴급구호 후원하기

모금기간 2026년 6월 26일(금) ~ 7월 31일(금)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785-11911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문의 전화 02-774-3488 | 문자 1666-1056 | 이메일 donation@ohob.or.kr

바로 기부하기



주님의 식탁, 명동밥집 5년을 돌아보며

명동밥집 장석훈 시몬



2021년 1월 6일,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은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곳곳의 무료급식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한 끼 식사조차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나마 도시락을 나누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나누던 첫날, 109명의 노숙인 손님들이 찾아와 도시락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렇게 명동밥집은 시작되었고, 그 작은 시작에 주님의 따뜻한 은총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5년이 흘러 이제 명동밥집은 하루 평균 800~900여 명이 찾아오는 무료급식소가 되었고, 지난 25년 12월 28일에는 마침내 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첫 실내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운동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던 지난날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 한 걸음씩 이어져 왔습니다. 109명으로 시작된 손님은 2026년 6월까지 약 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는 헤아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연과 감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아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노숙인들이 모이면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압력이 있었고, 명동성당 경내 출입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손님들의 공격적인 언행으로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위협을 받는 일도 있었고, 먹살을 잡히며 욕설을 듣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명동밥집이 있기까지는 봉사자님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명동밥집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야간에 노숙인들을 위한 간식 배달을 도와주셨던 분들, 힘들고 고되다고 꺼려 하는 요리와 설거지를 도맡아 매주 봉사해 주시는 분들, 먼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오시는 분들,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오셔서 하루 종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의 땀과 미소 속에서 저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후원자분들의 사랑 또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불교 신자이시면서 명동밥집을 직접 와서 보고는 5년 동안 큰 후원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어느 기업인, 할머니의 손톱을 깎아 드리고 받은 용돈을 모아 보내 주는 예쁜 공주님, 본인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청소 일을 하시며 모은 돈을 후원해 주시는 자매님. 그 모든 손길이 곧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였습니다.

손님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 속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 서울역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흑부리 할머니입니다. 오른쪽 얼굴에 큰 혹이 있으셔서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셨지만, 마음만큼은 매우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시며 사탕 한 개를 꼭 쥐여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함께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몸과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는 신부님들과 수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운동장에 깔렸던 색 바랜 초록색 매트와 파란 간이 테이블, 바퀴 달린 천막, 봄이면 담장 옆에서 흐드러지게 피던 살구꽃, 축대 위에서 묵묵히 밥집을 지켜보았던 아름드리 은행나무,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계란 프라이와 카레 냄새도 모두 추억이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선명하게 남은 기억은 땀 흘리며 함께 웃고 기도하고 봉사하던 봉사자님들의 선한 얼굴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며칠 후 이 정든 자리에서 정년퇴임을 합니다. 떠나는 제 뒷모습이 손님들과 봉사자님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명동밥집에서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총이었고 가톨릭 신자로서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명동밥집은 우리의 밥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차려주신 사랑의 식탁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 식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명동밥집 조리팀장 이야기

자숙
꼬막인데

"이 자숙 꼬막을 집에서 해 먹으려면 데쳐서 먹어야 하나요?"

나이 지긋하신 봉사자 자매님이 해동 작업을 하고 있던 제 곁으로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쪼뽕 열어 있던 꼬막을 흐르는 물에 해동하고 있던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숙(煮熟)'이라는 말 그대로라면 이미 한 번 익힌 꼬막입니다. 그렇다면 해동만 해서 먹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늘 팔팔 끓는 물에 한 번 더 데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 한 번 데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해동한 뒤 다시 데쳐 사용합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편이 찝찝했습니다. 조리를 이어가기 전에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익힌 제품이라 해동 후 바로 먹어도 되지만, 냉동 제품은 위생과 비린내 제거를 위해 한 번 더 데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명동밥집에서는 그날 꼬막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꼬막은 쫄깃한 식감과 진한 감칠맛이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맛있는 꼬막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꼬막만큼이나 양념장이 중요합니다. 양조간장을 기본으로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고, 여기에 매콤함을 더해줄 청양고추&홍고추 다짐과 매실액, 맛술, 까나리액젓, 초장, 생강즙, 설탕, 참깨, 송송 썬 쪽파, 영양부추까지 더했습니다. 하나둘 넣다 보니 모두 열댓 가지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메모지에 적어가며 만들었습니다. 맛을 보니 지난번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명한 꼬막비빔밥 전문점처럼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 명동밥집을 찾아오시는 손님들께는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념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명동밥집을 찾은 손님은 835명, 준비한 꼬막은 90kg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톨도 남김없이 모두 맛있게 드셨습니다.

봉사자님의 질문 하나가 저도 다시 배우게 한 하루였습니다. 익숙하게 반복하는 일이라도 한 번 더 이유를 확인하고, 더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 명동밥집의 한 끼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모여 완성됩니다.



원문보기



명동밥집 후원하기

글 | 소채 (명동밥집 조리팀장 김치현 크리스토폴)
이 글은 브런치에 연재 중인 [뽕밥집] - 10화 「자숙 꼬막인데」를 일부 수정한 글입니다.

무료급식 후원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활사업 후원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문의 전화 02-774-3488 | 문자 1666-1056 | 이메일 donation@ohob.or.kr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밥집 봉사자 문의 www.mdbj.or.kr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바로 후원하기



'자비 솔라 특별전, 어느 한 해 - 완벽한 날들' - Xevi Solà : One Year - Scenes in Time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스페인 화가 자비 솔라(Xevi Solà)의 한국 첫 전시가 예술의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명동밥집으로 기부되오니,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장소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1전시실 | **기간** 2026.7.10.(금) ~ 10.17.(토)



한마음한몸 정기·일시후원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마음한몸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 기준)

정기·일시후원 참여신청 및 문의

02-774-3488

6월의 새로운 한마음한몸 나눔 가족입니다

총 288명 | 일반후원자 264명, 명동밥집 후원자 24명

일반후원자 강경진 | 강경훈 베드로 | 강나영 세실리아 | 강상준 사도요한 | 강애매 | 강운선 엘리사벳 | 강태훈 예로니모 | 강화서 베르틸라 | 고무현 | 故박홍도 | 고정원 소피아 | 고지수 엘리사벳 | 공현준 루도비코 | 권혁민 | 권혁진 | 김동미 | 김경 | 김정은 라파엘라 | 김경혜 | 김규형 다니엘라 | 김나나 라파엘라 | 김대섭 스테파노 | 김동형 | 김미소 | 김보미 | 김상숙 | 김선영 | 김선준 미카엘 | 김성연 | 김성우 세례자요한 | 김성욱 | 김성호 엘리야 | 김소원 안나 | 김소윤 | 김수룡 루치아노 | 김수인 노엘라 | 김순금 루갈다 | 김신영 | 김연미 | 김연숙 프란체스카 | 김영진 | 김예진 | 김옥현 올리비아 | 김원경 | 김유현 | 김은숙 요안나 | 김재봉 미카엘 | 김재윤 요한보스코 | 김정미 체칠리아 | 김정은 마리아 | 김종화 요셉 | 김주완 비오 | 김준우 요셉 | 김지을 | 김지택 안드레아 | 김지호 | 김지희 | 김진숙 | 김효정 소하데레사 | 김희수 | 나동은 | 나수영 | 남상현 | 노명식 | 노선희 | 노옥란 세레나 | 대방동천영성체4조친구들 | 두은영 유스티나 | 라혜수 | 류안나 안나 | 마디마디한의원 | 명연주 루치아 | 문성진 요셉 | 박근민 | 박나빈 켈라나 | 박나혜 세실리아 | 박도진 마르코 | 박미경 데레사 | 박미호 | 박서정 마리아나 | 박성모 | 박소예 | 박아영 | 박영자 안젤라 | 박은수 베로니카 | 박종태 요한크리스토토 | 박종훈 루치오 | 박지아 소피아 | 박지연 | 박지은 | 박진성 야고보 | 박현주 | 박혜선 | 박혜준 | 박후영 마리아임마쿨라타 | 박희영 미카엘 | 방이동천영성체교리교사일동 | 배경숙 | 배성일 시몬 | 배은서 사라 | 배진희 | 백선영 | 백순이 | 백종건 | 변정연 데레사 | 불담한방병원 | 서대홍 | 서준서 마르첼리노 | 석춘지 | 소유미 | 송영희 | 송경남 마리아 | 송명인 | 송인택 | 송현경 | 신세라 | 신순영 루치아 | 신재훈 | 신주아 안젤라 | 심영섭 사도요한 | 안동수 | 안병학 이나시오 | 안성희 | 안정빈 | 안정우 | 양지훈 | 양진영 바오로 | 어거스틴 | 연희승 | 오동현 | 오상근 | 아오싱 | 오상택 | 오수민 미카엘 | 오은혜 세라피나 | 오인환 | 오종훈 | 우성기업(주) | 원종호 | 원주영 | 유길선 | 유병우 | 유보라 | 유성현 | 유인자 | 유현호 | 윤석준 | 윤선주 | 윤성희 | 윤소라 | 윤소진 | 윤아람 | 윤영애 | 윤혜옥 | 윤화자 고폴바 | 이규호 미카엘 | 이동주 | 이동희 발레리아 | 이미라 | 이미정 | 이서연 | 이서은 | 이성호 바오로 | 이승희 로사 | 이수연 보나 | 이수정 마리아 | 이숙현 세실리아 | 이연주 | 이영희 요한 | 이윤재 | 이윤희 | 이윤규 | 이은정 | 이은진 | 이일규 | 이자숙 | 이재곤 | 이주연 | 이진아 | 이충현 마르티노 | 이태훈 토마스 | 이해진 | 이현정 예후제니아 | 이홍자 | 임선경 마들렌느 소피 | 임선영 | 임수정 | 임수숙 | 임훈석 | 장선주 | 장영미 | 장우정 | 장정화 | 장지영 라파엘라 | 장지욱 안드레아 | 장학수 베드로 | 전규형 | 전담스팟노원점 | 전석종 사도바오로 | 전이서 | 정가영 발레리아 | 정구현 | 정미혜 아나다시아 | 정상균 | 정예린 | 정유민 로셀리나 | 정윤주 | 정은숙 | 정은지 세레나 | 정재혁 | 정재호 레오 | 정종혁 | 정진아 아녜스 | 정창호 | 정태욱 | 요안나 | 정현우 대견안드레아 | 정희주 데레사 | 조경희 | 조성래 | 조아인 올리비아 | 조연상 | 조윤하 | 조장택 | 조태호 | 조한아 | 주시훈 바실리오 | 주석회사박혜선아트스테이지 | 지소라 요세피나 | 진명선 | 진현주 토마스아퀴나스 | 차승희 아우구스티노 | 채고은 데레사 | 채인영 | 천경화 | 최경애 세실리아 | 최기영 | 최보은 | 최세실 | 최영숙 아가다 | 최영희, 장하은 | 최원우 | 최원재 | 최장은 로베르토 | 최재동 | 최현웅 | 최현정 클라라 | 최현희 | 클라라 | 피승호 | 한남숙 | 한명희 | 한민희 스테파니아 | 한연재 | 한학수 | 함민석 | 홍민성 마르가리타마리아 | 홍승표 | 홍주영 레지나 | 홍진영 | 홍혜문 베로니카 | 황상아 아녜스 | 황승환 마테오 | 황인선 | 황인섭 | 황호훈

명동밥집후원자 RimDonC | 가브리엘라 | 강동업 | 김보영 엘리야 | 김서은 노엘라 | 김은숙 요안나 | 김지영 | 듀크영어학원 | 마이아코리아 유한회사 | 머무름 | 박상원 | 박선우 | 박주현 | 변웅 | 송민주 | 엄지혜 | 유시현 | 윤이다 | 이동희 발레리아 | 이수진 실비아 | 정지연 안젤라 | 조병순 프란체스카 | 홍순애 | 홍유진 카타리나



생애주기별기부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주기별기부'는 생애 뜻깊은 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나눔의 기쁨을 선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생애주기별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6월의 생애주기별기부 나눔 가족입니다

총 105명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 기준, 비공제 요정 제외)

첫번째 기부 김도연 레오 | 김리나 | 김예나 | 박하윤 | 손은빈 | 오늘 | 유이준 예로니모 | 임도영 | 정이레 에스테르 | 채다인 릴리안 | 채정인 로즈마리 | 최은수 클라라 | 최지아 **두번째 기부** 김재하 | 박서진 아녜스 | 박정진 요한보스코 | 오혜주 이레나 | 채서연 | 채수연 **세번째 기부** 고한경 브루노 | 김정우 미카엘 | 박각준 | 윤건우 요한 | 윤승우 **네번째 기부** 박정진 스텔라 | 신지아 크리스티나 | 이윤솔 **다섯번째 기부** 김라온 아델베르가 | 정하은 안나 **여섯번째 기부** 강이준 레오 | 김지연 | 이윤우 미카엘라 | 장우영 가브리엘 **일곱번째 기부** 강준호 야고보 | 김민찬 베드로 | 양효진 미카엘라 | 왕서연 로즈마리 | 조민서 스텔라 **여덟번째 기부** 김시현 다니엘 | 김태민 스텔라 | 박채은 | 송지호 가브리엘 | 이우안 올리비아 | 이재인 프란체스카 | 이지인 미카엘라 | 이하루 레지나 **아홉번째 기부** 조설아 스텔라 **열번째 기부** 권수민 스텔라 | 김도형 안토니오 | 양소윤 스텔라 | 유재이 가브리엘 | 이다연 샬롯 | 이하나 마리스텔라 | 허시훈 라파엘 **열한번째 기부** 김도현 세례자요한 | 김지원 라엘 | 김택진 바오로 | 류다은 프란체스카 | 류연서 | 유진이 안나 | 이지호 소피아 | 최하진 마리아 **열두번째 기부** 유시현 바르나바 | 정유나 소하데레사 | 조연우 바오로 **열세번째 기부** 류현우 | 박병진 | 엄정호 | 엄호준 세례자요한 | 이현우 가브리엘 **열네번째 기부** 권태리 미카엘라 | 권태린 가브리엘라 | 김요한 세례자요한 | 서민지 마리스텔라 | 신지섭 대견안드레아 | 오시현 라파엘 **열다섯번째 기부** 김리예 율리아 **열여섯번째 기부** 홍은진 마리아 **마흔네번째 기부** 이유현 에스텔 **고인을 기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김지환 | 故김한근 요셉 | 故손경태 세실리아 | 故손무익 아우구스티노 | 故심현숙 카타리나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박상원 파비아노&윤예라 스페스 | 박진상 야고보&권성은 레지나 | 신민철&강세희 가브리엘라 | 장근우 미카엘&정서완 크리스티나 | 장재혁 요한&박수진 라파엘라 | 조동준&김지은 메릴리아 | 조영석 바오로&이아은 카타리나 | 탁윤우 요셉&박선영 엘리사벳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 강아지 도토 | 강아지 반하 **생일, 축일, 기타 기념일 등 감사 기부** (주)목동테라산호조리원 | 권정진 마르첼리나 | 김경무 루시아 | 류홍인 페터 | 박복선 마누엘라 | 백민수 토마스 | 이우준 베드로 | 전은혜 올리비아 | 최선아 | 최윤서 안젤라 대위 | 허소영 안젤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나눔가게·기업 신청하시고, 1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나눔편환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6월 ~ 2026년 6월)

나눔가게·기업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391호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한아름볼링프라자 | **392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주)이엘케이 | **393호점**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삼호통운(주) | **394호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통전로 주식회사 지오포드텍연구소 | **395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뱃골로 (주)디에이볼커미스 | **396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주)씨티엔 | **397호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전 오남로 피자플러스 | **398호점** 호예라 (HOYERA) | **399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BESTOOL 건일 | **400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주) | **401호점** 도들러 | **402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로길 (주)해피프린스 | **403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압구정안과의원 | **404호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제주국수 | **405호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서울민트치과의원 | **406호점**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하랑 | **407호점** 홀리레터프유 | **408호점** 경남 김해시 장유로 리인약국 | **409호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교 광교사임당약국 | **410호점** 서울 마포구 성암로 주식회사 소닉크루

7월 한마음한몸 월례미사

일시 7. 31(금) 미사 11:00~11:4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본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지향을 모아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김수규 사도요한 신부님의 주례로
월례 미사가 봉헌됩니다. 대면 미사로만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